

시

김형순

피고 진 꽃도 꽃이다

명옥현의 호수 위로
꽃물결이 잔잔히 번졌다
화르르 피어오르던 금빛 꽃들이
폭염에 데고, 상처는 뚝뚝 물결 위로 떨어졌다.
연잎 위로는 붉은 베름*이 번지듯 고요한
흔적이 남았다

황홀한 꽃방석을 깔아 둔 보금자리엔
아픈 자리마다 못다 핀 사랑이
다시 피어나려 했다

그리고 나는, 그 꽃들을 바라보다
문득 알게 되었다.
피고 진 꽃도, 여전히 꽃이라는 것을
오히려 상처로 빛나는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을

괜찮아!
넌 늦지 않았다

*붉은 베름 : 상처가 남긴 붉은 흔적

약력

▲아시아서석문학 신인상, 부회장
▲광주문인협회, 광주문학 홍보 이사
▲광주시인협회, 광주지부 재능시낭송협회 부회장
▲빛고를 전국 시낭송경연대회 대상
▲시집 : '엔드르핀 골목'



시

이성희

밥 먹었나

기도밖에 모르는 어머니
햇전어 앞에서 허둥대는
젓가락질

회 초장이 흰 블라우스에
주르르
흘러내렸다

가을 몇 번 지나면
백 살 진지 드실
느린 시계가 된 어머니
새벽 두 시
또 전화벨 울린다

밥 먹었나

약력

▲광주문인협회 기획총괄이사
▲열린시학 기획이사
▲수상 : 광주문학상, 광주예총 예술문화 대상
▲전국애송시낭송대회 심사위원
▲용아백일장 심사위원



시

허소미

갈대의 변명

바람의 동향을 알고 싶어
오늘의 이슈에 잠시 잠깐 몸 맡긴 것뿐인데
흔들흔들 흔들린다고? 흔들리며 산다고
쉽게 단정지어버리는 네 인식의 한계, 바깥에서
어느 세월에 배웠는지 모르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세상살이 묘수도 제법 나이테로 마디져 있다
언젠가는 홀로 설 꿈 꾸고 있다는 것을,
그 꿈 언저리를 세상이 기웃거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는 이 있을까
보이는 것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하얗게 부러지는 슬픔

약력

▲'한국시'(2001) 등단, '문학춘추' 시(2012)와 평론(2015) 등단
▲한국문협 회원, 광주문협 평론분과위원장
▲영호남문학상 수상
▲시집 : '먼 만나무' 외 1권, 동인지 다수
▲평론집 : '순수와 역사가 아롱지는 삶의 빛깔' 외 1권



수필

김정옥

나는 ‘화·토’를 좋아한다

우리 답사반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이 되면 답사를 간다. 그래서 항상 다음 답사를 기다리게 된다. 일주일에 두 번 가는 답사를 기다리는 재미에 푹 빠졌다. 무리하지 않는 산책 정도로, 호젓한 길을 걸을 때는 그 길의 주인이 되어 방해되는 것이 놓여 있으면 치우면서 간다. 간혹 힘든 길도 있지만 걷고 나면 성취감에 뿌듯하고 밤에 잠도 잘 온다. 어떤 때는 길을 잘못 들어 해매고 고생도 할 때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는 나는 일주일에 두 번의 답사를 운동으로 대신한다. 회원들의 나이도 비스무레해서 문화답사에서 이제는 걷기 위주 답사로 많이 간다. 일상의 밥만 먹고 헤어지는 모임에서 멀어지고, 취미나 특기 위주의 모임으로 옮겨간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동창이나 직장 친구들의 모임도 좋지만, 주일마다 한두 번씩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는 사람들도 좋다. 자연스레 가다 보니 와야 할 사람이 오지 않으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은근히 기다려지기도 한다. 회원이 새로 들어오면 그 또한 신선하다. 그 회원의 일생이 따라와 같이 울고 웃기 때문이다. 지나온 과거에 대하여 같이 웃고 때론 열을 내기도 한다.

간다 보면 다가와 주머니에 땅콩을 한주먹씩 넣어주고 가는 회원, 주일마다 달걀을 구워오는 착한 후배, 아이스 매실이나 커피를 타오는 사람, 아이스 봉투에 시원하게 오이나 과일을 넣어 가지고 오는 회원 등등 가지고 오는 것도 가지가지이다. 그 사람의 취향도 알 것 같다. 물론 가지고 오지 않는 회원도 있다. 그것도 좋다. 맛이 있다고 같이 먹어주는 사람도 있고 베푸는 것이 즐거운 사람도 있으니 말이다.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어느새 고갯마루를 넘고 들길을 지나간다. 바람 따라 길을 걸으며 많은 위로를 받는다.

가다 지치면 정자에 앉아 시 낭송을 들으며, 시와 자연이 주는 묘한 일체감에 빠지기도 한다. 즉석에서 시를 단체 카톡에 공유하고 그 시를 같이 읽고, 흥얼거리기도 하며 쉬었다 가는 풍경들이 정겹다. 운이 좋은 날은 누군가 기타나 하모니카를 가져와 즉석에서 산길 버스킹을 하기도 한다. 그윽한 산길, 느긋한 길에서 이루어진 산중 음악회. 팀을 짜서 팀 대항 장기자랑을 할 때도 있다.

구부러진 길을 가며 시내대의 서걱거림도 들린다. 담장 낮은 어느 집을 들여다보니 거기 때가 날개를 양옆으로 치켜세우며 우리를 보고 짹짹거리며 달려온다. 반가워서 달려오는지, 집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위협하려고 오는 건지 아무튼, 무서워서 일단 도망을 간다. 한참을 가다 보니 다시 조용해진다.

어느 해변에서는 바닷냄새 가득한 해산물을 사고, 섬 특유의 6쪽 토종 마늘도 산다. 단돈 만 원에 들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냉이를 사는가 하면, 5천 원에 산 시금치가 하도 많아 4명이 나눌 때도 있다. 맛있는 섬 감자도 산다. 어디를 가나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듯이 먹거리를 사는 것도 즐겁다. 그래서 나의 별명이 ‘사날라’이고 후배는 ‘파날라’이다.

가는 곳마다 그 고장의 맛집을 찾다니며 먹는 점심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여주의 쌀밥, 안의의 갈비탕. 강원도에서 먹었던 감자옹심이, 남해의 멸치 찜밥, 제주도의 통갈치구이 등 맛집 순례도 답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 당신이 좋아서 하고 당신이 먹고 싶어서 점심을 고른다는 교수님을 말할 수 없다.

무엇보다 으뜸은 광주 시내를 한 바퀴 돌며 픽업하는 교수님. 그럴 때면 맨 처음 탄 사람은 시내를 한 바퀴 돌아서 가고, 귀가 때는 유치원 버스처럼 반대로 돌아서 제일 늦게 내린다. 그래도 모두가 행복하다.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크리스천의 사랑을 실천하며, 무슨 사명처럼 남을 위해 봉사하는 교수님, 부디 건강하시어 오래오래 우리의 건강과 마음을 튼튼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빌어본다.

‘하루에 3시간을 걸으면 7년 후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화·토’에 걷는 것을 좋아한다. 굽이굽이 구부러진 길에는 그리움이 흐른다. 파란 하늘의 흰 구름이 처연하게 아름답다. 그리고 오늘도 걷는다.

약력

▲전국디지털문학상, 광주문인협회 인터넷백일장 당선
▲제1회삼봉정도전시조문학상, 영광21신문시 부문 우수상
▲영광다카시 우수상, 시인보호구역 전국다카시 수상
▲현대시문학다카시 문학상, 현대시문학커피문학상 대상 등 다수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윤남지국 952-1687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

CMYK